

지역 소식통

정읍시보건소,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지역 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

해반기 출산준비교실은 9월부터 11월까지 월 4회 총 12회 운영되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산전·산후관리, 모유수유 방법, 신생아 관리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배냇저고리, 보온조끼, 애착인형 등 아기 용품 만들기 프로그램도 마련해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과 태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이고, 매월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및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26)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준비교실은 임신, 출산, 육아의 전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교육이 예비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을 갖추고 육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덕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 운영

정읍시 덕천면(면장 김영덕)은 컴퓨터와 모바일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일일 3회)마다 덕천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시청각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8월 9일 기준 의무교육(온라인, 전화 교육 등) 미 이수자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따른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16일 대면교육을 이수한 최호년 씨는 "온라인교육과 전화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교육이수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면교육 과정을 개설해준 덕천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읍시 천사하이로즈, 여름방학 맞아 떡·패브리카트·전통주 만들기 등 큰 호응

정읍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천사하이로즈에서 떡, 패브리카트, 전통주, 전통놀이기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사하이로즈는 지난 5월 에어리얼 로프 코스 연장, 증강현실(AR) 트리아트, 2층 테라스 및 실내 휴게시설 등 조성을 완료하고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해 더욱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기 놀이기구인 에어리얼 로프 체험코스 확장으로 이용 시간이 늘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고 문화관광 진경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은 지친 삶에 힐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천사하이로즈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새로 조성된 실내 휴게공간에서 진행하며 체험비는 무료다.

이와 함께 오후 1시부터는 풍선공연, 버블 공연, 솜사탕 캐릭터 공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2023 천사하이로즈 여름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천사하이로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실내놀이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행복한 천사하이로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수강생 모집

4개 교육과정 6개 프로그램 80명 규모... 21일부터 선착순

부안군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수강생을 오는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군은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주대·전주비전대·예수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개 교육과정(지역특화, 생활과 건강, 부모교육, 드론) 6개 프로그램(로컬브랜딩 '부안의 숨은보물찾기', 백제시대! 폭력을 위한 건강하게 치아관리하기, 에너지충전! 즐거운 노년을 위한 건강캠프, 금강같은 내새끼 '내아이 울바로 양육하기', 드론다터 비상상황을 위한 드론 정비교육', 다이나믹 드론 축구 '날아라 슈퍼드론') 등으로 부안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대학의 우수 강사진으로

구성해 주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부안생활문화센터 및 부안드론교육원 등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부안군민 및 전북도민 등 80명(프로그램별 상이)이며 접수방법은 전북시민대학 학사관리시스템(ims.jbks.or.kr)이나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063-580-4214)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북시민대학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평생학습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정읍시보건소는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균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급수시설, 목욕탕, 온천, 장식분수, 수영장 물놀이시설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돼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할 예정이다.

레지오넬라균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임상 양상으로 레지오넬라 폐렴은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증상으로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과 독감형(프티와 열)은 유행시 90% 이상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기 쉽다.

보건소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과 대형목욕탕, 찜질방, 대형쇼핑몰, 호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균 검사 결과를 따라 청소년, 소독, 재검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기 찬 환경에 산재되어 있어 지극히 높은 기온과 습한 여름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제학술대회서 도라지추출물·청국장 등 효능 발표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포스터발표·학술강연 진행

고창군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국제식품학술대회에서 도라지추출물 등의 효능을 발표하며 그간의 적극적인 연구성과를 알렸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주최 2023년도 제44차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포스터발표와 학술강연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포스터발표를 통해 '효소처리 도라지추출물의 면역증강효과'와 '청국장 스낵의 변비 개선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기능성연구팀장 류태호 박사가 비임상 동물모델 기반 농생명소재의 효능평가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을 펼쳤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군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전북도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재와 제품의 가능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고창산 고들빼기 김치의 발효 특성'과 '베리류 시판식초의 이화학적

성분 비교'를 주제로 한 포스터발표는 고창군 지역특화식품을 홍보하고 그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K-Food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New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of K-Food)'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식품저장과 유통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분야의 최신 지식을 공유했다.

심덕섭 이사장(군수)은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과 농생명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연구원들이 학술발표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안읍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부안군 부안읍은 읍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한 사람을 기리는 2023년 부안읍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부안읍민대상의 시상 분야는 △에향대상 △효열대상 △공익대상의 총 3개 부문이며, 추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식을 작성하여 추천권자인 기관·사회단체장과 마을 이장을 통해 8월 28일까지 시상 업무를 관리하는 부안읍 총무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수상자에 대해 오는 10월 1일에 부안해물마루에

서 개최되는 부안읍 승격 제80주년 기념 제3회 부안읍민의 날 대동한마당에서 시상식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부안읍 관계자는 "지역사회 개발과 읍민회합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다수 추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읍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처우개선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회의

고창군이 18일 오후 군청2층 상황실에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창군 사회복지 종사자 회의'를 열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공약 중 하나다. 고창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복지증진·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용역'을 지난 5월부터 지식산업연구원에서 시행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군청 정재민 사회복지과장과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상봉),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종민)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인·장애인·아동·영유아 등 다

양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현황조사와 종사자의 인권,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회의를 통한 시설별 종사자들의 의견은 고창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정책 추진 방향 설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정재민 사회복지과장은 "고창군의 체계적인 복지정책 방향수립으로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